

避諱에 관한 연구

박필상¹, 강옥화¹, 이고훈¹, 박신영², 성만준¹, 권동렬^{1*}
¹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본초학교실, ²국립수의과학검역원

ABSTRACT

A Study of "Stupid Words"

Pil-Sang Park¹, Ok-Hwa Kang¹, Go-Hoon Lee¹, Shin-young Park²,
Man-Jun Seong¹, and Dong-Yeul Kwon^{1*}

¹Department of Oriental Pharmacy, College of Pharmacy, Wonkwang University, Iksan, Jeonbuk 570 749, Korea, ²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s, Anyang 430-016, Republic of Korea

Characters are the tool of writing language. In particular, Chinese characters were the tool of communicating, storing and intermediating information in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and exercised great influence on diseases, diagnoses, treatments and others.

Stupid Words are used to avoid calling the name of an emperor or an elder. The Stupid Words, written in old literature, were mostly used to avoid calling the name of emperors in those days. At first, those were used to express respect, but with time, the rule began to be strict. Those who violate the rule were dismissed or expelled; what is worse, even their families were exterminated. Medical books were no exception to the rule.

The history of Stupid Words is originated from primitive society. Those were begun to be used customarily, and were institutionalized over time. Although dynasties had been changed in large numbers in history, Stupid Words were not disappeared and had been used until feudalism

-
- 교신저자 : 권동렬
 -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본초학교실
 - Tel : 063-850-6802 E-mail : sssimi@wonkwang.ac.kr
 - 접수 : 2007/ 5/ 19 채택 : 2007/ 6/ 12

rings down the curtain.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Stupid Words became different as to each age, and exercised great influence on old literature. The Stupid Words in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are shown in herbal names, authors' names, terminologies, symptomatological names and others. Through Stupid Words, the date of publication can be presumed, and pleonasm can be discriminated from lacunae, and it can be judged whether those works are true or not. On the other hand, those cause inconvenience philologically. The Stupid Words in old medical books became different semantically throughout the years, and so the original became difficult to be translated as well as its meaning cannot be communicated correctly. Eventually, time and effort are expended unnecessarily in some cases.

Key word : Stupid Words(避諱)

1. 서론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는 도구이다. 漢字는 특히 한의학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고, 매개하는 도구였으며, 질병, 진단, 치료 등의 형성과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피휘(避諱)는 다른 말로 諱文 또는 諱字라고 일컫는다. 말이나 문장을 표현할 때 帝王이나 尊長의 이름을 피하여 말하는 것이다. 古書籍에서 보이는 避諱字는 대부분 당시 황제의 名諱를 避하기 위한 것이다. 避諱를 할 때는 名諱의 글자 자체뿐만 아니라 곱이 같을 때에도 피해야 했으며(이것을 嫌名이라 한다), 주로 缺劃(한 두 획을 빠트림), 缺字(글자 전부를 없애거나 공간을 비워둠) 및 代字(뜻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로 대체)의 형식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처음에 단지 존경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차로 엄격해져서 규정을 어겼을 경우 가뱍계는 면직이나 제명을 당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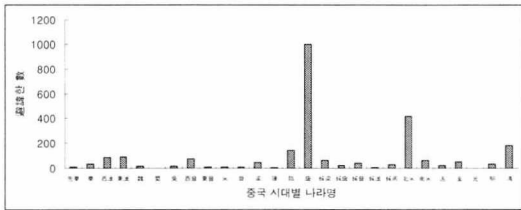
였고, 심하면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봉건왕조가 막을 내리고 비로소 없어졌다. 수많은 의학서적 또한 이 제도의 규제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한의학에 관련된 避諱를 살펴보고 여기에 어떤 영향과 장단점이 있었는지를 고찰해보았다.

II. 본론

1. 避諱의 역사

원시사회에서 관습으로 쓰이기 시작한 避諱는 나중에 제도로 정착하여 수 천 년을 지속하여 왔다. 긴 세월동안 王朝가 바뀌고 수많은 황제들이 바뀌었지만 避諱制度는 변하지 않고 봉건제도가 막을 내릴 때까지 지속되어 왔다. 중국의 歷史학자인 陳垣은 《史諱舉例》에서 말하길²⁾ “避諱爲中國特有之風俗. 其俗起于周, 成于秦, 盛于唐宋. 其歷

史垂二千年，其流弊足以淆亂古文書。”라고 하여 避諱가 시대별로 특징이 있었으며 고문서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한의약계통의 避諱는 약명, 저자명, 의서명, 증상명 등 여러 부문에 걸쳐서 영향을 끼쳤다.



위의 표는 王建이¹⁾ 《史諱史典》을 근거로 통계처리 한 자료(의학, 문학, 역사, 정치 등 각종분야 포함)이다. 위의 표로 알 수 있듯이 避諱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兩漢시대부터이며, 唐, 北宋, 淸때에 가장 성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宋나라 때에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唐나라 때 보다 避諱한 수가 낮은 이유는 당시의 피해야 할 글자들이 대부분 生避字(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자)였다고 전해진다. 한의약 분야에서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黃帝內經》, 《傷寒論》, 《金匱要略》, 《難經》, 《脈經》, 《諸病原候論》, 《千金要方》, 《千金翼方》, 《甲乙經》 등의 대부분의 古醫書 板本이 避諱가 가장 엄격하게 규제되었던 宋나라 때에 정부주관으로 설립된 校定醫書局(1057년 설립)에서 정리한 것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때 황제들의 名諱인 匡胤, 玄朗, 恆, 禎, 曙 등은 자주 볼 수 있는 避諱이다.

2. 藥名과 避諱

1) “恆”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常山の 본래 이름은 恆山이었다. 《本草綱目》에서는⁶⁾ “恆亦常也. 恆山乃北岳名, 在今定州. 常山乃郡名, 亦今眞定. 豈此藥始產于此得名歟?”이라 하였으며, 《神農本草經》에서는⁷⁾ “恆山”이

라고 기재하였으나, 후에 西漢의 漢文帝인 劉恆의 恆을 避하기 위하여 常山으로 바꾸었다가 宋代에 편찬된 《千金要方》에는⁵⁾ 다시 恆山으로 회복하였다. 그러나 宋의 眞宗인 趙恆을 避하기 위하여 缺劃인 “恆”字를 사용하였다. “恆山丸”을 “恆山丸”으로 고친 것이 그 예에 해당된다.

- 2) “玄”字의 避諱는 적지 않게 등장하며 역사 또한 길다. 北宋황제의 始祖인 趙玄朗과 淸의 聖祖인 玄燁등이 있다. 宋의 眞宗은 大中祥符(1008년) 7년에 始祖의 이름을 피해 사용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이 때 여기에 연관된 玄胡索, 玄蓼, 玄明粉등을 각각 延胡索, 元蓼, 元明粉으로 고치게 되었다.²¹⁾ “眞武湯”역시 玄을 避하여 玄武湯¹⁴⁾에서 眞武湯으로 고쳐 쓴 것이다.
- 3) “菝”와 “曙”의 避諱를 살펴보면, “薯蕷”는 避諱때문에 두 번을 고치게 되었다. 처음에는 唐太宗의 이름이 李豫인데, 豫와 菝가 발음이 같아서 薯蕷를 薯藥으로 고치게 되었다. 후에 宋英宗의 이름이 趙曙이기 때문에 薯藥을 다시 山藥으로 고쳤다⁴⁾.
- 4) “胡”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黃瓜”의 원래 이름은 “胡瓜”였는데, 後趙政權을 세운 石勒은(274~303년 十六國 後趙의 개국황제) “胡”字를 避諱할 것을 공포하여, 胡瓜를 黃瓜로 고쳐지게 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石勒이라는 이름과 관계없이 그가 羯族(胡羯)人이었으며, 胡天(祆教)을 신봉하였기 때문에 “胡”를 避諱한 것이다.
- 5) “鏐”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五代十國의 吳越王인 錢鏐는 “鏐”와 “榴”의 발음이 같아서 石榴를 金櫻 또는 金櫻으로 바꾸었다.
- 6) “密”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錢鏐와 동시대 인물인 楊行密은 淮南의 절도사였는데, 후에 唐의 吳王으로 봉해져서 揚州를 점거했

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避諱하기 위하여 “蜂蜜”을 “蜂糖”으로 바꾸었다.

- 7) “杭”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許叔微가 쓴 《普濟本事方》에는⁸⁾ 北宋의 宋欽宗인 趙杭의 “杭”字가 “丸”과 疊韻(韻母가 같은 것)이 되어 이것을 避하기 위해서 “丸”을 “圓”으로 고쳤다.
- 8) “虎”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傷寒論》에 나오는 “白虎湯”은 《醫心方》卷十四第珊二에서 “《千金方》轉作白獸湯”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唐初에 쓰여진 《千金方》原書에는 “獸”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는 唐代的 唐高祖 李淵의 祖父인 李虎의 名諱를 避하기 위하여, 그 당시 “虎”를 “獸”, “武”, “彪”등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千金方》에는¹⁴⁾ “白虎湯”으로 나와 있어 宋代에 이미 원래의 모양인 “虎”로 回改했음을 알 수 있다.
- 9) “劉”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通志》에서 말하길 “江南人因漢時謂劉爲卯金刀, 乃呼劉爲金. 是以又有金寄奴草之名.”이라 하였는데, 이는 漢나라 皇帝의 姓이 劉인 관계로 “劉”字를 避하기 위해서 劉를 버리고 卯, 金 및 刀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劉寄奴草가 金寄奴草로 불려졌다²⁴⁾.

3. 전문용어와 避諱

- 1) “痔”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漢나라 高朝의 皇后의 이름이 呂雉이기 때문에, 雉를 피하기 위하여 雉鳥를 “野鷄”로 바꾸었고, “痔” 또한音が 같아서 “野鷄”로 바꾸었다. 《外臺秘要》에⁹⁾ 기재된 “療小兒野鷄, 部瘳閭方”에서 野鷄가 바로 痔이다.
- 2) “正”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秦始皇의 이름은 嬴政이었는데, 그 당시 政을 피하기 위해

正月을 端月로 고쳤고, 그 시대에 쓰여진 의서에서도 고쳐진 흔적이 보인다. 예를 들어 《黃帝內經》에 나오는 “眞氣”나 “眞藏脈”은 “正氣”와 “正藏脈”인 것이다.

隋의 楊上善이 쓴 《黃帝內經太素》의 注釋文 에도¹⁰⁾ “古本有作正藏, 當是秦皇名正, 故改爲眞耳, 眞, 正意同也.”라고 하여 正이 避諱 때문에 眞이 되었음을 언급했다.

- 3) “治”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治療”의 “治”字는 唐高宗인 李治의 이름을 避하기 위하여 “療”, “造”, “理”등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예는 《新修本草》에 자주 등장하며,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 자주 언급되는 “○○湯主之”에서 “主”는 “主治”나 “治”의 의미인 것이다.
- 4) “癰”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素問》과 《靈樞經》에서는 “癰”으로 쓰이던 것이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와서는 “淋”으로 바뀌었다¹⁶⁾. 이것은 後漢 殤帝의 隆을 避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淋”과 “癰”은 구별되는 증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¹⁸⁾
- 5) “泄”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黃帝內經太素》에¹³⁾ “胃中寒則臍脹, 腸中寒則 腸鳴飧洩”라고 하는 부분에서 “洩”字는 唐太宗 世民의 名諱를 避하기 위하여 “泄”字를 “洩”字로 바꾼 것이다.
- 6) “淵”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千金要方》卷六第一에 기재된 “夫鼻洞, 鼻洞者, 濁下不止, 傳爲撒曹眼目, 故得之氣厥.”의 부분에서 “鼻洞”은 얼핏 보면 특수한 증상명인 것 같은데, 《針灸甲乙經》卷十二第四에 “淵”字의 注에서 “一作洞”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것으로 “鼻洞”은 “鼻淵”(현대의 鼻炎증상과 비슷함)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唐高祖인 李淵의 “淵”을 피하기 위해 고쳐 쓴 것이다.

4. 경락과 혈 자리 용어의 避諱

- 1) “淵”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唐高祖인 李淵을 避하기 위해 太淵을 太泉으로 淸冷淵을 淸冷泉으로 바꾸었다.²⁰⁾
- 2) “昺”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李淵의 조부인 李昺을 避하기 위해서 “丙主左手之陽明”을 “景主左手之陽明”으로 고쳤다.
- 3) “匡”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宋太祖인 趙匡胤의 匡을 避하기 위하여 “刺目匡”을 “刺目匡”으로 고쳤다.
- 4) “貞”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宋仁宗인 趙禎(1023년)의 禎을 避하기 위하여 “肩貞”을 “肩貞”으로 고쳤다. 이 시기에 쓰여진 《本草圖經》에서¹¹⁾ 《貞元廣利方》을 《正元廣利方》로 고친 것은 좋은 예이다.¹⁷⁾

5. 의학 저자명의 避諱

- 1) “敬”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唐代《新修本草》의 저자인 蘇敬은 宋代에 와서 趙匡胤의 조부인 趙敬의 敬을 피하기 위해 蘇恭으로 바꾸었다.
- 2) “序”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蘇沈良方》은 沈括과 蘇軾이 지은 것인데, 蘇軾의 조부 이름이 蘇序인 관계로 東波가 글머리를 쓸 때 “序”를 “敘”나 “引”으로 고쳤다.
- 3) “緒”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傳信方》의 저자인 劉禹錫은 조부의 이름이 劉緒이어서 “緒”와 同音인 “序”와 “敘”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며, 글머리 에서도 “方信之述”라고 쓰고 있다.
- 4) “世”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新修本草》의 또 다른 저자인 李勣은 원래 이름이 徐世勣인데, 唐의 개국공신으로 李氏를 하사받아 姓이 李로 된 것이며, 唐太宗 李世民的 “世”를 피하기 위하여 中間의 世가 없어지고 李勣으로 된 것이다.

- 5) “貞”字의 避諱를 살펴보면, 宋版《外台秘要方》卷三十七의 餌寒食五石諸雜石等散論并法에 “故陶正白云：昔有人服寒食散，檢古法以冷水淋身滿二百罐，登時堰斃.”에서 陶正白은 梁代醫家인 陶弘景을 말하는 것인데 陶貞白이라고도 불리었다. 宋仁宗인 趙禎의 貞(嫌名)을 피하기 위해서 陶貞白을 陶正白이라 적은 것이다.
- 6) 이외에 避諱 때문에 의서의 제목을 고치는 경우도 있다. 元의 朱震亨이 서술한 《金匱鉤玄》은 淸의 康熙皇帝전까지 제목으로 사용해 오다가, 康熙의 이름인 玄焯를 피하기 위하여 책 제목을 《金匱鉤元》으로 바꾸었다.²²⁾

6. 避諱의 장점과 단점

避諱현상으로 우리는 그 작품을 지은 시기와 진위 등을 판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黃帝內經太素》의 避諱현상으로, 高保衡, 林億등이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序에서 밝힌 《黃帝內經太素》의 저자인 楊上善이 隋代사람이 아니라 唐代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¹⁹⁾

이러한 장점외에 避諱는 문헌을 찾아 참고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준다. 우리가 고전을 살펴다 보면 避諱를 가끔 접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避諱때문에 改字한 글씨를 후대에 다시 원래의 字로 회복시키는 것을 回改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비교적 올바르게 回改를 하였지만, 避諱字인 줄 알고 이를 잘못 回改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⁵⁾ 예를 들어 “澹澹”은 心下가 動蕩하여 음식이 안 들어가고 토하려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인다. 唐武宗 皇帝는 이름이 炎이어서 당시 “炎”의 偏旁에 삼수변이 붙은 “淡”조차도 못쓰게 하여, “淡”을 “澹”으로 고쳐 쓰게 하였는데, 후대에 回改하는 과정에서 “澹”이 避諱字인 줄로 오인하여 “淡”으로 고쳐 쓰게 되었는데, 현재 인쇄된 책(이미 다

교정작업을 거쳐 출판됨)에는 거의 볼 수 없지만 필사본의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膽病者, 善太息, 口苦, 嘔宿汁, 心下淡淡, 恐人將捕之.”라고 기재된 것이 있는데 “淡淡”은 “澹澹”의 뜻이며, 필사본의 《諸病源候論》에서 “水飲之氣不散, 上乘于心, 復遇冷氣所加之, 故令火氣不宣, 則心里淡淡然欲吐.”라고 기재된 것이 있는데, 역시 “澹澹”이라고 쓰여야 옳은 것이다. 또한 前代의 避諱字를 완전히 回改하지 않은 것도 있어 같은 책에 回改字와 避諱字가 동시에 출현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¹²⁾ 이와 같이 古醫書에 존재하는 많은 避諱字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후대에 回改하는 과정에서 본래 표현되는 文字와 다르게 쓰여 지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문을 해석하는데 미진하거나 오판하는 단점도 있다²¹⁾.

III. 결 론

避諱는 秦나라 때부터 淸나라 때까지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되어 있었으며, 한의약분야에서는 宋나라 때 가장 엄격하게 시행되어 그 당시 국가의 주관 하에 다시 편찬된 《黃帝內經》을 비롯한 여러 古典醫書들은 이 제도의 규제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유명한 醫書들은 당시 避諱의 특성(名諱, 廟諱...)을 알아야만 문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황제의 名諱를 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정권을 잡은 초기의 왕조 때에 비교적 엄격했다.¹⁾ 避諱에서 사용되는 缺劃이나 缺字의 형식은 우리가 손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글로 改字를 한 경우는 짐작하기가 좀처럼 어려워 古典을 읽는 후학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며 誤讀하는 일이 발생한다. 게다가 한의약분야에 사용된 避諱字들은 대부분이 改字이어서 문헌연구에 더욱 커다란 장애를 가져다준다. 古典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사전(옥편)이 잘못 되면 더욱 미

궁으로 빠지게 된다.²³⁾

避諱 연구는 한의약 고전의 이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부분이다. 한의약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국의 고전문헌들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원래의 판본이 유실되는 경우도 많았고, 원본을 후대에 전해지는 과정 또한 순탄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판본은 제한적인 부분이 많으며, 그 중에서도 避諱字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보는 후대는 더욱 혼란을 겪어야만 한다. 하나의 避諱字를 알기 위하여 역사적인 상황과 책을 쓴 저자의 상황까지도 알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종종 글자를 잘못 이해하여 전체의 문장을 오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避諱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쏟아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避諱에 사용된 많은 내용 중에 한의약에 많이 사용된 避諱字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연구로 인하여 문헌연구에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 한의약학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V.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07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므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조문헌

1. 王建. 貴州文史學刊. 1998, 06, p35-41
2. 張燦鉀. 中醫古典文獻學.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24
3. 管成學. 古籍整理研究學刊, 第1期. 1984, p32-36
4. 李時珍. 本草綱目.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676
5. 孫思邈. 千金方. 華夏出版社. 1994, p158

6. 李時珍. 本草綱目.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150
7. 馬繼興. 神農本草經輯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47
8. 文淵閣四庫全書 第七四一冊. 大星文化社. P375-468
9. 王燾. 外臺秘要. 成補社. 1975. P986
10.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5
11. 蘇頌. 本草圖經.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P129, 153, 155, 161, 173
12. 唐慎微. 證類本草. 華夏出版社. 1993. p38,443,105
1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5. P4
14. 孫思邈. 千金方. 華夏出版社. 1994. p147
15. 沈樹農. 中醫古籍用學研究. 南京師範大學. 2004. p87,88
16. 郭秀梅. 醫古文知識. 2000. p34-37
17. 張如青. 醫古文知識. 2003. p32,33
18. 陽曉. 湖南中醫學院學報. 第1期. 1997. p7,8
19. 焦振廉. 福建中醫藥. 第1期. 2004. p47-50
20. 李鋤. 上海中醫藥雜誌. 第7期. 1984. p40
21. 李定國. 中醫藥學刊. 第3期. 1989. p25
22. 胡濱. 浙江中醫學院學報. 第3期. 1984. p46,47
23. 王彥坤. 暨南學報. 第3期. 1992. p141-143
24. 楊艷慶. 中草藥命名管窺. 2005. p7